

# 閑話客談 (團體、團體力) 會長

누구나 다 알고있는 現狀을 重言 復  
 言 쓰게되어 大端 羅索하오나 決코 會員 여  
 러분에게한 不平도 아니오 하물며 여러  
 분을 誑說한다는 極히 穢濫스러운 惹  
 因은 絶對아니올시다. 萬幸히 紙面의 割  
 愛를 받았기에 나의 愚見의 一端을 쓰는 것  
 이니 不遜한 뜻은 別리 容恕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團體에 對하여 .

前回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사회나 國家나  
 民族은 團結치 아니하면 維持해 갈 수  
 없습니다.

孔明같은 賢君 良相이 있다할지라도 此에  
 應하는 百官 萬民이 있어야되며 項羽같은  
 力拔山, 氣蓋雲의 勇將이 있다할지라도  
 此에從하는 千軍 萬馬가 있어야 되는 것  
 이라고 生覺합니다.

이사회는 어디까지나 結合하고 集結해야  
 할것인데 種々이 因合과 集結이 잘되지 아  
 니하니 참, 딱한 일입니다.

三尺 童子도 알고있는 이따위 소리를  
 왜 일부러 貴重한 紙面에 쓰느냐고 꾸  
 지람 하일런지 모르나 한번 容恕하시  
 고 보아주세요.

只今 우리사회에는 當然한 事物이 實行  
 되지못하고 누구나 贊成하고 변히 알고  
 있는 事理가 通하지 못하니까 기가 딱  
 히어 이것 거것 穢說 堅說, 쓰게 되

는 것입니다.

各種社會團體나 諸般機關을 보면 훌륭한  
 國立機關이건 純全한 私設團體이건 當時  
 不純한 空氣만 充滿하고 意見百出되어  
 좀처럼 團結되지못하고, 그럭저럭 組織된  
 團體도 全會員은 고사하고 任員만 모이는  
 任員會가 半數出席이 드물고 一年에 한번  
 이나 두번 程度의 總會가 成員未盡로 流  
 會되는 일이 非一 非再니 都大體 어떻게  
 될 卍스인지 알 수 없습니다.

偶々人을 만나서 말하여보면 모두가 有志紳士요  
 条理整然한 高見을 拜聽할 수 있는데 이리  
 한 兩班배들이 모여서 組織된 團體가 이런 꼴  
 이니 아무리 生覺하여 보아도 不可解 不可思議  
 의 수수거기 라고 하겠읍니다.

아마도 모두가 孔明이오 제각기 項羽요 到  
 處에 洪吉童이니까 이러한 人士들이 組織  
 한 團體는 이러한 結果가 生하는 것이라는  
 定義와 結論이 成立된다고 推想할 수밖  
 에 없습니다.

## ○ 團體力에 對하여 .

一人의 力을 一個라 假定하면 十人의 合力은  
 十個요 百人의 合力은 百個가 되는것은  
 國民學校 一年生 이라도 能히 解答할 수있  
 는 算術學的 鉄則이라고 할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異常한 現象이 있다.  
 卽 우리 社會團體라 하는것은 十人이 團  
 合하면 十個以上 十二個程度나되는 合力  
 을 별 수 있고 百人이 合力하면 百個以上

百五十個나 되는 巨大한 合力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現象을 무어라 말할것인가? 별로 좋은 名答이 없으나 나는 이것을 有機的合力이라고 억지로 꾸며낼까 합니다. 大抵人間自体가 有機的物質의 集合體인 만큼 人間들이 集合된 團體도 有機的組織에 틀림 없고 따라서 其合力도 上記한바와 같이 算術的의和가 아니고 有機的이라 할가. 或은 幾何學的의和가 되는것도 그별뜻한 說明이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또하나 우리가 크게注意하고 잘記憶하여 둘것이 있습니다. 尺今 十人이 團合해야 될團體가 달성이 難아서 겨우 五人만이 통일다면 其合力은 五個가 되지못하고 三個 或은 二個로 줄어늘고 乃終에는 零이되어 버립니다.

이제 千名이 통일해서 各人의力을 合해야 할團體가 不誠實한 二百이나 三百名이 통일고 또 그나마 그中에서 서로辱하고 서로 謀害하고 互로中傷 呪咀하면 其合力은 零이되어 有耶無耶의 幽靈團體가 될뿐 아니라 及其世에는 非難 攻擊을 當하여 自滅致亡 할 것입니다.

而 團體라 하는것은 算術的의合力이 아니고 有機的의合力을 充分히 發揮하여 우리社會의 向上 發展에 이바지 하는것이 原則이나 萬若 反對로 團體가 有機的의合力을 得치못 할때는 社會의 發展거녕 莫大한 害毒을 流布하고 自滅하여 버릴 것이니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殊히 注意하고 記憶해야 할것입니다.

— 繼續 —

# 學會記事

## 任員會

日時 禮紀4291年5月23日

場所 學會事務室

### 會議事項

1. 會報刊行의件
2. 會報揭載原稿委請의件
3. 建設法에依하技術者經歷證明願發給의件 伴한維持費의件
4. 會章制定의件
5. 其他事項

x x x x x x

日時 禮紀4291年6月11日

場所 學會事務室

### 會議事項

1. 6月号會報刊行件
2. 其他事項

~ o x o x o x o ~

## 新規入會員

其他

申範澈	鄭夏植
林成均	申學俊
金光詩	朴玄鳳
鄭元一	金龍順

# 懇談會

日本大阪大学々院 (工大電氣科) 에 研究中인 鄭萬永氏 歸國하여 其間國內 電氣施設等 概索하고 渡日에와서 五月二十三日 本會에서 招請하여 其間研究에 對한 結晶을 聽取한後 學會任員 諸位와 懇談會를 開催하다.

## 電氣點滅開閉器試驗

金生泳氏 殘明岳 電氣點滅開閉器試驗을 六月十一日 學會事務室에서 任員多數參席下 同器試驗을 施行하다.

## 電力界의 小史 (一)

會長

머리의 말씀.

文獻有無도 모르고 關係記錄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調査 또는 取捨할 精力과 余暇도 缺어 다만 나의 漠然한 記憶과 여기 저기 冊床 서랍속에 있던 端片的 메모를 綜合하여 兩緒없이 記錄함으로써 반드시 誤記와 遺失한 眞이 있을터이니 容恕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同時에 此에對하여 參考나 修正될 文獻或은 記錄이 있거든 勿디 通知하여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하나이다. 會員中에서 한마디의 말씀이든가 한條項의 記錄이라도 보내 주신다면 얼마나 感謝의 반을런지 限없이 반가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中에서 調査 또는 記錄에 時間과 手酷가 必要할時는 葉書나 電話로 呼出하여 주시면 卽時書記를 派遣하겠습니다.

學會로서는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千金값이 重하게 여기며 한줄의 書字라도 珠玉값이 貴하게 生覺합니다. 次고 나一個人의 所願이 아닙니다. 우리 電力界를 淸하시고 우리學會를 爲하시는 마음으로 特別히 配慮하여 주십시오.

### 電力利用의 始初

電氣의 利用이라 할가. 電氣의 應用이라 하면 極히 広範闊한 말입니다. 通信 照明 電力, 電化 電熱 醫療 畜產 農産 防虫 防寒, 保温 冷凍, 放送 傳像 TV, 電腦 等々 現代産業과 人類文化의 主動이되는 電力利用이니 一々히 그 歴史를 記錄하자면 數說을짓기며 電力界小史라는 題目에도 어그러질가하여 左記域까지만 抄記하기로 하나이다.

(1) 電信의 始動,

檀紀42/8年(西紀1875年)高宗22年8月20日에 最初의 電報를 發다합니다. 距今73年前인데 其內容에 대한 記錄은 未詳이오나 通信部에 는 있을듯하다.

(2) 電氣事業體의 始動.

檀紀423/1年(西紀1898年)光武2年1月18日에 漢城電氣株式會社가 創立되었다. 距今58年前이오 其內容은 大概如左하다.

總資本金 150萬圓이며 韓美合資로 構成되었다. 即美國人H. 콜부란氏가 社長이오 副社長에는 美國人H. R. 보즈트워氏 와

韓國人李根培 金斗昇 而氏를 合하여 三人이 있다 한다.

出資比率은 美國側은 機械 技術의 提供으로 八十万환이오 韓國側은 現金 30萬환 土地 其他 現物로 四十萬환 該當을 提供키로하여 合計 七十万환 出資로 合意되어 都合 百五十萬환의 會社가 組織되고 社名은 漢城電氣株式會社라 하여 上記日字로 認可되었다 한다.

— (계속) —

